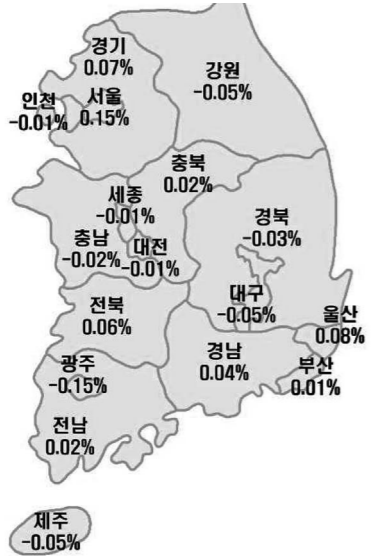


광주 집값 반등 언제나...올들어 전국 최대 하락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13주 연속하락 누계 -0.76%

미분양 해소 더디고 급매만 물량 부족 전세는 오름세

광주의 집값 하락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해소가 더디고 급매물 위주 거래가 집중되면서 하락 거래가 멈추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5% 하락했다.

그중 동구가 자산·산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0.27%가 하락하고, 북구는 연제·용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남구는 백운·방림동 대단지 위주로 각각 0.20%씩 하락했다.

올들어 광주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18주 연속으로 보합 또는 꾸준히 하락하면서 0.76% 떨어졌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0.01% 올라간 것이 광주 매매가격의 마지막 상승분이다.

특히 광주는 지난달 6일과 13일 0.06%, 20일 0.07% 하락에 이어 27일에는 0.13%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커졌다.

광주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각각

0.03%, 0.02%, 0.03%, 0.02% 상승하고

지난 4일 0.01% 떨어졌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0.53% 상승했다.

전남의 매매가격의 경우 지난달 6일 0.05%, 13일 0.01%, 20일 0.05%, 27일 0.01%, 지난 4일 0.02%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에 올해 3월 30일까지 -0.04%였던 매매가격지수 누계는 지난 4일 +0.10%로 상승 전환했다.

전남의 전세가격은 지난 4일 0.07% 오르면서 누계 기준 1.03%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통과 유예조치 종료로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횡보세를 이어

가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월 셋째 주 0.15%에서 넷째 주 0.14%로 소폭 축소됐으나 변동폭은 미미했고, 이번 주 다시 0.15%를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을 3주째 유지했다.

지난주 상승폭을 축소하며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인 외곽 등 중하위권에서는 다시 오름폭을 키운 지역들이 등장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08% 상승했다.

비수도권(-0.01%)은 2주째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02%, 세종시는 0.01% 각각 내렸고 8개 도는 0.01% 올랐다.

0.09% 올랐다.

서울(0.23%)은 임차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문의가 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전체적으로 올랐다. 전주 대비 상승폭은 0.03%p 확대됐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0.13%)와 인천(0.10%)은 직전 주와 상승률이 동일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5% 올랐다.

비수도권(0.04%)에서는 5대 광역시와 세종시, 8개 도 모두 각각 0.04% 상승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신협 '무배당4U저축공제' 출시 3년 만기 연복리 4% 고정이율

신협중앙회는 3년 만기 일시납 방식의 저축성 공제상품인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일시납 구조로,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연복리 4%의 고정이율이 적용된다.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금융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에 예측 가능한 목적자금 마련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기 상품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인 반면, 복리 상품은 원금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어 만기 시 누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 남성이 5000만원의 일시납으로 가입할 경우 3년 만기 시점에 세전 기준 5471만8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약 471만8000원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며, 예상 환급률은 109.4% 수준이다.

보장 기능도 강화했다. 사망 시에는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에 사망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해 병원비나 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노후 설계 기능도 담았다. 가입자는 '무배당 연금전환특약II'를 통해 필요에 따라 공제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방식은 △중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고령철 신흥중앙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목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노후설계까지 보다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품의 취지"라며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의 실질적 금융 편익을 높이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80세까지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다만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 공제료보다 적을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이승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소비쿠폰 100만원당 소상공인 매출 43만원 증가

조세연구원, 행안부 용역 취약계층 72.6% 효과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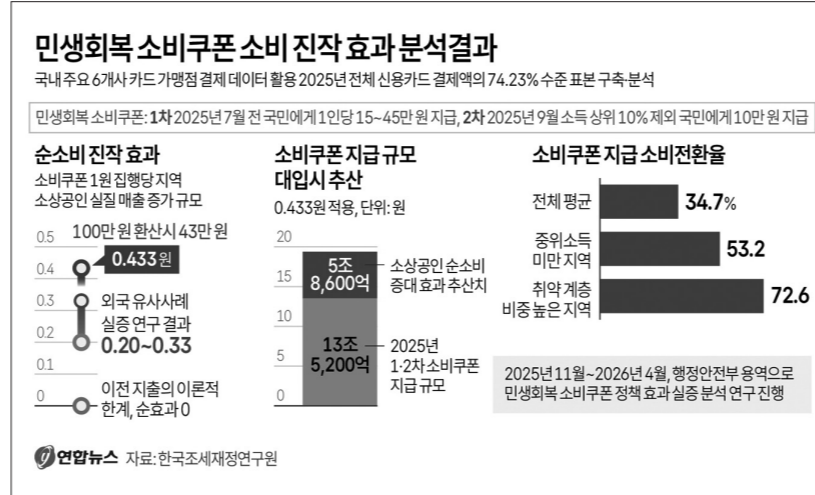
13.5조 순소비 5.86조 ↑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이론적으로 순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가 늘어난다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100만원으로 환산하면 43만원 매출이 늘어난 셈이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7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세미나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국내 주요 6개 카드사인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 수준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전



지출의 이론적 한계인 순효과 0에 가까운 수준을 넘어 외국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도 크게 웃도는 0.433의 순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 5200억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소상공인의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 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장 소장은 이러한 효과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액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정책 효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전제 조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해 소모하는 정부소비 지출이 아니라 국민이 남부한 세금을 바우처 형태로 돌려드린 이전지출"이라며 "일반적으로 이전지출은 단순 재분배 성격이 강해 순효과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번 정책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점이 핵심 발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더 뚜렷했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코스피 또 최고치 경신...장중 7500 터치

외국인 7조원 순매도·개인 6조원 순매수

톨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코스피가 7일 7500선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6조원 넘게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매도하고 개인이 이를 매수하며 가격하락을 막았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05.49p(1.43%) 오른 7490.0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14.51p(1.55%) 오른 7499.07로 출발했다. 이로써 전장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7426.60)를 제차 경신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 한때 7531.88까지 상승. 사상 처음 7500선마저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5조 9913억원, 1조 95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외국인은 7조 169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외국인 순매도액은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 2월 27일 기록한 직전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7조 530억원)을 2개월여 만에 갈아치웠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849억원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전장 '7000'포인트를 이끈 주역인 대형 반도체주가 장중 사

상 최고가를 동반 경신했다.

삼성전자(2.07%) 가장중 27만7000원까지 올라 전장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SK하이닉스(3.31%)도 166만50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0.92%)도 상승했으며, 두산에너지(7.40%), HD현대중공업(6.94%), KB금융(1.45%), 삼성전기(0.55%) 등도 올랐다.

아울러 현대차(4.00%)를 비롯해 기아(1.94%), 현대모비스(2.08%) 등 그룹 계열사 종목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블라스' 개발형 모델의 작동 영상 공개에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대한항공(7.33%), 제주항공(4.63%) 등 항공주도 강세였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250세대 모집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창·하남지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50세대를 모집한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향후 빈집(공가)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를 신속하게 연결해 중단 없는 주택 공급을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대상 단지 및 물량은 광산구에 위치한 신창도시공사아파트 66형(전용면적 49㎡) 50호, 하남2지구다사로51단지아파트 66형(전용면적 49㎡) 170호, 79형(전용면적 59㎡) 30호 등 총 250호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달 3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1세대당 1개 단지의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신청은 시민 편의를 위해 광주도시공사 사옥 1층 현장 방문 신청과 등기우편 신청을 병행해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등기우편 신청은 22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



4월 외환보유액 42.2억달러 증가 7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워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 이 미국 달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7억8000만달러(약 622조)로, 3월 말보다 42억2000만달러 늘어났다. 연합뉴스

2금융권 수신잔액 감소에 '금리 경쟁'

1년만기 예금 금리 3.24%...16개월만에 최고

2금융권 예금 금리가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수신 잔액 감소에 대한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24%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월(연 3.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3.19%)과 비교하면 한 달 새 0.05%p 올랐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작년 12월 이후 계속 상승해 시중은행 19곳의 평균(연 2.54%) 차이가 0.7%p에 달했다.

저축은행 금리 인상은 '수신 방어'를 위한 교육책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p 이상 높아야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시중 금리 상승과 증시 활황으로 인한 '머니 무브' 현상이 겹치면서 2금융권의 수신 잔액이 줄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말잔)은 각각 10월, 11월, 8월 이후 내리 감소했다.

상호저축은행의 2월 말 수신 잔액은 97조 9365억원으로, 2021년 10월(97조 4187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

신용협동조합(143조 613억원)은 작년 11월부터 3조 4559억원 줄었고 새마을금고(249조 2611억원)는 작년 8월 이래 11조 5992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여파로 2%대의 금리에 머물렀던 작년 하반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날 공식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310개 상품 중 연 3.5% 이상 제시한 상품은 50개, 연 3% 이상은 268개로 집계됐다.

상상인 플러스의 회전정기예금은 연 3.62%로 가장 높았다.

상호금융도 수신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 경쟁에 가세했다.

새마을금고는 7일 기준 나주동부·영등포당산·달서 등 일부 금고에서 연 3.8%의 'MG더빙강정기예금'을 선보였다.

신협 역시 흥덕신협이 '유니온정기예탁금'은 연 3.71%를 제공하는 등 연 3%대 후반 상품이 잇따르고 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3월 신규예금 기준 1년 상품의 평균 금리는 정기예탁 연 3.08%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